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4 호 【루게 제 24417 호】 창제 103 (2014)년 1월 4일 (토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마식령속도》를 창조한 기세드높이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크나큰
신심과 활력에 넘쳐 새해의 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적호소따라 선군조선
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
한 투쟁으로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
고있다.

오늘의 총진군은 마식령전역에서
창조된 새로운 진군속도로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
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전면적공
세이다.

지난해 마식령스키장이 만년대
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완공되
고 《마식령속도》가 창조된것은 조국
청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기적이다.
《마식령속도》의 창조, 이것은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혁명적진군에 새
로운 박자를 가하는 장엄한 포성으
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
한 대비약, 대혁신의 활로를 열어놓
은 경이적인 사변으로 된다. 《마식
령속도》가 창조됨으로써 당이 결심
하던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백두산
대국의 혁명적봉파가 힘있게 과시
되고 올해의 총진군의 승리를 위한
사상정신적도약대가 마련되게 되
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
들, 인민들은 마식령스키장의 완공과
더불어 건설의 최진성기를 안이온
크나큰 궁지에 넘쳐있으며 《마식령
속도》를 창조한 기세드높이 질풍같
이 내달려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힘
차게 열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마식령스키장건설에서 발휘되
고있는 군인들의 불굴의 투쟁정
신, 투쟁기쁨을 따르며 우리 나
라에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을 일
으켜나가기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의도이며 결심이다.》

우리 인민은 혁명의 년대기마다
새로운 진군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하
며 세계적인 기적과 영웅적위훈을
수놓아왔다. 천리마속도와 비날론속

도, 80년대속도와 최천속도, 여기
에는 빈대에서 사회주의강국으로 단
숨에 솟구쳐오르고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으며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온
우리 조국의 비약의 력사, 천지개벽
의 력사가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영
광스러운 시대에 새로운 대진군속도
가 창조된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일
이다. 남들같은 10년이 걸려도 할수
없을 방대한 공사를 1년 남짓
짧은 기간에 완공하고 천연원시
림과도 같은 깊은 산중에 사회주의
문명의 상징인 마식령스키장을 로
동당시대의 대기비적창조물로 호
통히 일떠세운것은 우리의 크나큰
자랑이며 긍지이다.

《마식령속도》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웅대한 부강조국건
설구상과 애국헌신의 령도가 안이온
새로운 사회주의대진군속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에
력사적인 호소문을 발표하시고 마식
령스키장건설을 여러차례 현지
지도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에게 《마
식령속도》를 창조할때 대한 크나큰
민심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 지휘력량도
꾸러주시었다. 건설정형을 수시로 알
아보시고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
들에서 공사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
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대
책을 세워주시신것이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며 모든 건설대상을 지역적특성
을 살리면서 손색없이 완성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신분이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건설장을 찾으신 때
마다 마식령지가 천지개벽되었다
고, 인민군대에 의하여 《마식령속도》
라는 새로운 시대가 더욱 빛나게
되었다고,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
한 전체 건설자들은 모두가 애국자
들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
하여 마식령스키장이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

서고 《마식령속도》가 창조될수 있
었다.

《마식령속도》에는 젊음으로 약동
하는 우리 조국의 비약의 기상이 어
려있고 우리 식의 창조방식, 창조본
매가 집약되어있으며 세계를 향하여
더 빨리, 더 힘차게 내달리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향과 의지가 맥박
치고있다. 《마식령속도》야말로 원대
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강성부흥의
높은 명마루에 비약해나가는 위
대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진군속
도이다.

《마식령속도》는 백두산혁명강군의
불굴의 정신력과 영웅적기질이 낳은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을 받들고 사회주의대진군선투쟁들
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힘있는 부
대들이 마식령으로 달려왔으며 생활
터전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투에 진
입하였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결사
투쟁을 벌였다. 군인건설자들에게 있
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호소문에서 제시하신 구호 《총공격
전, 총결사전을 벌려 마식령스키장
건설을 올해안으로 무조건 끝내
자!》는 승리의 포대, 위훈의 기지로
되었다. 그들이 틀어쥐 한마와 정대
는 결사투쟁의 무기였고 그들의 공
격방식은 립체전, 전격전, 설멸전이
었다. 천연비와돌과 험한 산밭들을
깨이내고 수십만명의 면적에 스쿠
터들을 번듯하게 달아놓았으며 호
텔과 봉사 및 숙소건설, 직속기
착용장과 사도건설을 비롯한 60
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대상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고 1년 남
짓한 기간에 세계일류급의 스키장
을 일떠세운것은 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는 혁명
적군인정신을 체질화한 우리 인민
군인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력사
의 기적이다.

《마식령속도》는 령도자의 구상과
결집성이 천만군민의 의지이고 실현
인 군민대결의 위력이 낳은 위대한

현연일체의 진군속도이다.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은 말그대로
군민단결의 대적전장이었다. 군인건
설자들이 전진의 돌파구를 앞장에
서 열어나가고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총
포탄을 만들어 전선에 보내주는 심
정으로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
로 생산보장하였다. 군대와 인민이
투쟁정신도 하나, 투쟁기풍도 하나
가 되어 마대전, 불매당으로 결사
투쟁을 벌였으며 마식령에 방대한 면
적의 스쿠터들이 자재를 드러내게
되었다.

군인가족들이 전투현장에서 경제
신동의 복소리를 높이 올렸고 온 나
라 전체 인민의 뜨거운 원호의 마음
들이 마식령으로 끊임없이 달려왔
다. 군민대결의 위력은 말로도 위
여넘는다는 산세협한 마식령을 결
연근 본원천이었고 남들같은 상상
조차 할수 없는 세계적인 전면을 안
아온 기적창조의 원동력이었다. 선군
시대에 대기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마식령스키장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
민의 현연일체가 낳은 고귀한 결집
성이다.

《마식령속도》는 우리 당의 과학기
술증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
천으로 보여준 새 세기 사회주의대
진군속도이다.

사회주의문명국을 우리의 힘, 우
리의 지혜, 우리 식으로 일떠세우
겠다는것이 스키장건설자들의 한결
같은 열망이었다. 그들은 비록 마식령
에 발을 붙이고있었지만 높은 세계
를 굽어보며 조선식화상의 나라를
펼쳐온 강한 민족적자존심의 체현
들이다. 《마식령속도》창조의 나날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경제적으로
벌어졌으며 병사들의 슬기로운 두뇌
에서 태어난 우리 식의 과학적이며
창의고안성이 도입되었다.

합집애가 없고 최상의 수준이다.

산밭들에 뻗어내린 스쿠터들은 말
할것도 없고 호렷과 속도를 비롯한
봉사건을 하나하나 다 지형과 용
도에 맞게 특색있게 꾸러졌다. 《마식
령속도》의 창조는 누구나 제힘으로
세것을 개척하겠다는 강한 자존심과
정도로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
로 생산보장하였다. 군대와 인민이
투쟁정신도 하나, 투쟁기풍도 하나
가 되어 마대전, 불매당으로 결사
투쟁을 벌였으며 마식령에 방대한 면
적의 스쿠터들이 자재를 드러내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조국력사에
저기 있어보지 못한 거창한 창조와
번혁의 시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지금이야말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기를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건설에
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
쳐넘는다는 산세협한 기적의 혁명
인근 본원천이었고 남들같은 상상
조차 할수 없는 세계적인 전면을 안
아온 기적창조의 원동력이었다. 선군
시대에 대기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마식령스키장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
민의 현연일체가 낳은 고귀한 결집
성이다.

《마식령속도》는 우리 당의 과학기
술증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
천으로 보여준 새 세기 사회주의대
진군속도이다.

사회주의문명국을 우리의 힘, 우
리의 지혜, 우리 식으로 일떠세우
겠다는것이 스키장건설자들의 한결
같은 열망이었다. 그들은 비록 마식령
에 발을 붙이고있었지만 높은 세계
를 굽어보며 조선식화상의 나라를
펼쳐온 강한 민족적자존심의 체현
들이다. 《마식령속도》창조의 나날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경제적으로
벌어졌으며 병사들의 슬기로운 두뇌
에서 태어난 우리 식의 과학적이며
창의고안성이 도입되었다.

발휘하여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마식령속도》로 비약의 불바람을 세
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농업과 건설, 과학기술부문을 올
해의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할 중요전선
이다. 농업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문제
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50년이 되
는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결
정적전환을 일으켜 당이 제시한 앞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
선인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과학연구부문에서
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에서 전방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
과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
제들을 풀고 최첨단을 돌파하여 지
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금융, 화학, 전력, 석탄공업부문을
비롯한 선형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
현대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
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
나가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
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과
수산부문에선 여러가지 질풍은 인
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고구
마에서 만산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교육, 문
학예술, 체육부문에서는 혁
명적스포츠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
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한 군민건설
자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 철저히 구
현해나가야 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 구현자
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
진군의 위훈자, 승리자이다. 혁명적
군인정신만 있으면 어떤 높은 목
표도 당시에 점령할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마식령의
대천제의 드림도 일으켜 무조건 철
히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지시라면 단숨에의 정신으로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
로 밀고나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인민군인들의 불굴의 정
신력과 투쟁기질을 적극 따라배워
당 이 번개를 치면 우위를 치며 사회
주의 대진군전선에서 영웅적위훈을 떨
쳐나가야 한다. 인민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
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마식
령속도》창조자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군
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서
로 협조하고 보조를 맞추며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최상의 성과와 승리
를 이룩해나가는 우리 시대의 투쟁
방식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있게 펼쳐나가야 한다.

《마식령속도》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
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
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불타는 결의
에 충만되어있다. 각급 당조직들에
서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데로 당사업을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당조직들과 정치일군
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정치일군
을 하나 해도 공세적으로, 화신식
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떨
떨 끓이며 초소와 일터마다서 끊임
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수
있어야 한다. 1970년대 당의 기
조추진시기처럼 사상전, 선진전등의
원바람을 일으켜 온 나라에 혁명의
복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마식령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올해를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
한 번혁의 해로 빛내자.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친 불멸의 전투적기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접한 각계의 반향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온 나라 당
원들과 인민들의 가슴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고있다.
백두산대국의 승리와 진전, 투
쟁과 번영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를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에
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 신념과
의지가 활화산처럼 타버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은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
을 선포하신 40년이 되는 뜻
깊은 올해에 당을 조직사상적
으로 공고히 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혁명
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
하여야 합니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투쟁과업
은 방대하다. 하지만 당조직들
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
로 강화할 때 못해낼 일이 없으
며 절명 못할 목표가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
에서 가르쳐주시던것처럼 올해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전
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 각동적인 해에 온 나라 당
조직들과 당일군들앞에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일층 강화하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
는 총공격, 가속기의 역할을 더
욱 원만히 수행하여야 할 영예

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 올해에 혁명과 건설에
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도록
하겠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
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
하여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당의 사상적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
록 하겠다. 당조직들이 당안에
유일적령도권을 철저히 세우
고 당대회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들어취고나가도록 함으로써 온

나라를 일심단결의 성세, 모두
만들겠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원열쇠는 천만군민
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
키기 위한 화신식정치사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
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겠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
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 기본
공리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사
당세포를 중시하고 적극 도와주
는 기풍을 세워 모든 당세포들이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최후
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
도록 하겠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어

니다운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풀어 안아 따듯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 그들이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자기 초소에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
록 하겠다. 모든 당일군들이 《모
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
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
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을 위
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게 하
겠다.

그러하여 모든 당일군들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맨 앞장에서 높은 실적
으로 만들어나가는 신년의 동
지, 의리의 동지로 만들겠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새해의 첫이월 내 조국의 천
리방선초소들마다에서 경애하
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신년사
를 피뎠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백두산혁
명강군의 기상과 위력을 더 높이
이 떨쳐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
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들에게 쓸쓸히
국가와 인민에게 쓸쓸히 충실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
화발전시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새겨들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
에 넘쳐나오는것은 또 한편의
천후명장을 높이 모신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결의드높이 펼쳐나갈 수도의 근로자들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우리들의 가슴을 새로
운 신심과 솟구치는 열정으로
끓여받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는 올해 우리
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뛰어넘어나가야
할 원천적문제와 방도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던대로 하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조국통일
유훈 관철을 위한 올해의 력사
적투쟁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위업
현의 획기적전진을 능히 이룩할
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
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
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
투쟁에 힘차게 펼쳐나섬으로
서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번
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민족의 영리한 령양
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제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년이
되는 해이다.

외세에 의해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후대들에게 통일
된 조국을 안겨주기 위해
아버이수령님께서 기울으신 한
없는 로고와 심혈은 그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 수령님의 조국통
일유훈 관철을 최상최대의 과제
로 내세우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
이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자욱을
이어가시며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을 마련
해주시 민족의 위대한 은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과 유언대로 조국통
일운동의 획기적전진을 이룩하
기 위한 불멸의 지침인것으로
하여 해외의 온 겨레의 심장을
들어잡고있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기적을

북장지구관료관리기업소 지
배인 신원일은 지금 우리 령합
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커
다란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있다
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우리는 탄부들의 양양된 열의
에 맞게 모든 사업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대
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참된
지휘선원이 되었다.

올해의 투쟁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년을 빛나
게 장식할 대추전장파 잇달았
는 승리자의 진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석탄생산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
겠다.

인용장광장 지배인 주길훈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
아안고보니 한계 단위의 일군
으로서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 강지영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책임
감을 깊이 자각하고 식료품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여 인
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풍은 식
료품들이 쏟아져나오게 하겠
다. 생산공정의 기술개선사업을
더욱 힘있게 내밀고 새로운 과
학기술성파들을 생산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
를 더욱 원만히 갖추어나가
겠다.

관선시습배전부 지배인 리
호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전사회적으로 절약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
치시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
였다.

과학기술을 보검으로 틀어쥐
고 시간의 총진체를 더욱 합
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송배전망들에
대한 종합지휘의 컴퓨터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밀고나가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결의드높이 펼쳐나갈 수도의 근로자들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일심단결의 위력 떨치며 조국이며 앞으로!

또 한번의 백두산천출위인을 높이 모시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번영기를 열어 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 주제 103(2014)년!

주제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세 번째 새해를 맞이한 천만군민은 평범한 미래에 대한 신심과 탁판에 넘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환하신 영상을 경건히 우러른다.

위대한 태양의 걸출한 위인상을 심장깊이 간직 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에 맥박치는 애국의 숨결로 울해 대고조선의 첫 자욱을 힘차게 내디디었다. 력사적인 신년사에 매혹된 온 나라의 마음과 마음이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단 한결 없이 달리고있으며 원수님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기어이 최후승리를 떨치리라는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자기 평도자의 사상과 뜻을 받드는 길에서 천만군민이 한 호흡으로 살고 한 본색으로 일해나가는 이 격동적인 현실은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뚜렷이 보여주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혼연일체의 위대한 중심으로 높이 모신 새 조국의 앞날과 우리 혁명의 전도가 얼마나 양양한가를 음변으로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가장 큰 재부입니다.》

새해의 첫 기슭에서 가야 할 혁명의 천만리길을 바라보는 우리 군민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이 높뛰는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그이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기때문이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시작되는 해의 1월 어느날이었다. 새해 정초부터 떠나던 전진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때 혁명적동지에 기초한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그 위력으로 혁명을 백승의 길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열의를 감회깊이 추억하시었다. 그리고는 이 위대한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는 동지부자, 전우부자가 되었고 하시면서 이것은 억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우리의 귀중한 재부중의 재부라는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최강의 무기,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위대한 추진력인 일심단결! 정령 그것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의 가장 큰 재부이며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혼연일체의 위대한 중심으로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은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더욱 친근하면서도 비상한 의미로 천만군민의 심장을 팡팡 두드려주고있다.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발이 닳도록 인민들속으로, 혁명적전우에...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러하시였듯이 우리 원수님께 있어서도 단결은 곧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려는 무한한 정이고 그들의 행복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 참석하시어 인민들의 열렬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 101(2012)년 4월

최상의 수준에서 꽃피우는 헌신적인 사랑이다. 뜻깊은 이해의 첫아침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바로 전날, 한해의 마지막날의 당보에 편집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 보도를 생각하며 눈물을 뜨겁게 적시었다.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마시령스키장을 찾으면서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삭도를 먼저 타시고 정점까지 오르시면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불멸의 화복을 우러르며 온 나라가 놀랐다. 한 나라의 령도자가 인민들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료해하기 위해 아직 시공자, 건설자들도 제대로 타보지 못한 수천만 삭도를 타고 산세들도 뛰어 넘어가시지 못하는 명정점에 오르며 친히 시운전을 한 때가 그 언제 있었든가, 사진문헌에서 알 수가 내리다보이는 산발을 보며, 흰눈덮인 마식령골안에 서서있을 12월의 강추위를 생각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는 이런 위험한 길에 계시지 말아주시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온 한해, 아니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매 날과 달들을 우리 원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시었다. 백두산기슭의 삼지연군으로부터 최대 열점지역의 섬초소, 크지 않은 산골군의 인민봉사기지로부터 동해의 이듬없던 수산사업소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젊은 열의가 새겨진 자욱들마다에 생겨난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그 얼마나. 인민군장을 찾으면서 인민들이 없는 자애로 풍연을 관람하겠다고 하시며 스텝없이 4월 28번파석에 앉으신 사실, 우리 군인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이게 된것이 그러도 기쁘시어 군인들에게 공급할 물고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신 사연, 자그마한 목선을 타고 사나운 파도가 일어난지는 위험천만한 날파도를 헤쳐 섬초소들을 찾으신 이야기... 그 길에서 우리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념원과 의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었다. 단결깃양, 전투부처림으로 혁명의 마나면 길을 헤쳐나 오버이수령님의 그 모습으로, 한평생 수수한 잠바웃, 인민복, 아전복차림으로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소중히 안으시고 군인들과 인민들을 찾아 선군궐도우로 인민행렬차를 취임없이 달리시었다. 세상은 나라도 많고 정치가들도 많지만 우리의 대원수님들과 같이, 우리 원수님처럼 인민을 찾아가고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민과 단 한치의 간격도 없는 그런 위인들은 일찌기 없었다. 혁명의 본질도, 선군의 목적도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데 두신 우리 원수님이시기에 그이께서 헤쳐오신 선군장정의 길에는 감동없이 받아안을수 없고 눈물없이 새길수 없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얼마나 많이 새겨져있는지 모른다.

이태전 2월 어느날 절세의 위인들께서 마련해주신 현대적인 살림집을 받아안은 만포시인민들이 대해같은 그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경애하는 원수님께 백두의 혈통을 대를 이어 총칭하게 받들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만세소리를 더 높이 울려갈 결의를 담은 편지를 활발과 함께 삼가 올리였을 때였다. 인민들의 불같은 충정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이런 감동같은 친필을 보내주시었다. 《... 나는 도당과 시당일군들이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해 한생애를 끄고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 그들이 제기하는 백옥같은 친필을 장군님의 사랑으로 시안의 인민들, 어린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집행하시요. 만포시 인민들의 편지를 받아보시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과 함께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사회주의강성 국가건설의 길을 맨 앞장에서 헤쳐나오시. 자신께서 먼저 밟아 닳도록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시며 김정일애국주의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어주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단결의 전통을 전조가에서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혁명적전우의 력사와 빛내여가시며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의 돌격전으로 부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자,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우리 원수님에 대한 신심을 저버릴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공동된 사상감정이고 높은 정신력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위한 불변의 일심단결이다. 이 위대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강적도 쳐부릴리치고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 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 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깊이 새기며 승리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열정에 넘쳐 새해의 총진군에 한사팔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새해 2014년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 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 신년사에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올해는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 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이다.

선군조선의 번영기, 여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며 우리 인민에게 하루를 리 새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 주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 신년사에서 《승리의 신심들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 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올해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투쟁과업은 참으로 거창하고 방대하다. 우리는 올해에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정미제니 양곡고지기를 기어이 정미하여야 하며 청년강제단식발전소건설과 세로직구 축산시설건설, 고산과 수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 비롯한 중요대상건

설과 살림건설, 합숙건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 등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한다.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놓기 위한 과학기술발전이 힘겨워야 한다. 뿐만아니라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의 생산을 추켜세우고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현대적혁신을 일으키며 경공업과 수산업발전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와야 한다. 교육과 보건, 문화예술,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분야에서 비약과 혁신의 큰결실을 내짚는것도 올해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사업도 중단없이 내밀어야 한다.

이 모든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될 때 선군조선의 번영기가 펼쳐질수 있으며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올해가 더없이 영예롭고 장엄한 투쟁의 해로 되는것이다.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 나가는데서 우리의 장엄한 총진군은 승산이 확고한 투쟁이다.

나라와 민족의 번영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을 정치군사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토대와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웅대한 리상과 목표는 자기 힘에 대한 믿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이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백두산절세 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힘차게 전진시키오는 력사적로정에서 우리의 정치군사적위력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갔다. 전당에서 애국의 열정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립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

장과 마시령스키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 세우며 우리 당을 따라 새롭게 변모하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있다.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시령수도》 창조와 불길속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단계를 따라배워야 할 사고관점과 투쟁기풍, 일본색의 본보기들이 마련되고 당의 위대한 구상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린것은 참으로 자랑할만 한 일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배로 강화되었다. 이것은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 나가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크나큰 힘으로 된다.

최근년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선경제에 힘있게 추진되어 우리의 국가경제력도 비할바없이 강화되었다.

자립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경제전반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속에 첨단과학기술 분야들이 연이어 개척되고 우리 조국이 우주강국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특히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앞으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지난해에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힘을 합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인민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립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

다시 시작한 삼복철강행군

지난해 7월 16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일떠지고있는 아동병원과 구강병원건설장을 찾아주시었다.

이날 아침부터 지못내 내리는 비로 하여 건설장은 험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또다시 찾아주시것은 지난해 8월 어느날이었다. 문수물놀이장조감도앞에서 해설을 듣고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실내물놀이장에 들어서시자 걸음을 멈추시고 오래도록 현관홀을 주의깊게 바라보시었다.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일군들을 정정케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기에 어버이장군님의

값 높은 평가

지난해 9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강건 65돐을 맞으며 훌륭히 완공된 은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었다. 이곳에 꾸러진 3호동과 15호동의 여러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에 장미꽃을 심어주시며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하나하나 활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10월 중순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보시던 때의 일이다. 이날 승마구락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마운동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기분이 좋다고, 승마운동은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때나 할수 있는 운동인것만큼 승마구락부가 문을 열면 청소년들과 마니아들이 마을것처럼 단련할수 있을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온 세상이 뛰어다닐듯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꽃피워주시려

이태전 2월 어느날 절세의 위인들께서 마련해주신 현대적인 살림집을 받아안은 만포시인민들이 대해같은 그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경애하는 원수님께 백두의 혈통을 대를 이어 총칭하게 받들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만세소리를 더 높이 울려갈 결의를 담은 편지를 활발과 함께 삼가 올리였을 때였다.

인민들의 불같은 충정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이런 감동같은 친필을 보내주시었다.

《... 나는 도당과 시당일군들이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해 한생애를 끄고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 그들이 제기하는 백옥같은 친필을 장군님의 사랑으로 시안의 인민들, 어린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집행하시요. 만포시 인민들의 편지를 받아보시

고결한 충정을 안으시고

림상을 잘 모셔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한평생을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상을 품어들이 빛내여가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이 얼마나 뜨겁게 맥박치는 뜻깊은 말씀인가.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수물놀이장이 완공되면 우리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마음쓰신 어버이장군님의 유언을 관철하는것으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리심에 떠받들려 문수물놀이장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현역석고림상이 정중히 모셔지게 되었다. 이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신께서 바치신 신철과 로고는 생각지 않았고 은하과학자거리를 일떠 세우는데 공헌을 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들의 이름으로 감사사를 주시었다. 그들이 받아안은 값없는 평가, 정령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여나오신 새로운 기적과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하나하나 세리주신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갈수록 더해만지는 사랑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새창에 끓어 나오시던 때의 일이다. 이날 승마구락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마운동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기분이 좋다고, 승마운동은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때나 할수 있는 운동인것만큼 승마구락부가 문을 열면 청소년들과 마니아들이 마을것처럼 단련할수 있을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온 세상이 뛰어다닐듯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새창에 끓어 나오시던 때의 일이다.

이날 승마구락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마운동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기분이 좋다고, 승마운동은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때나 할수 있는 운동인것만큼 승마구락부가 문을 열면 청소년들과 마니아들이 마을것처럼 단련할수 있을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온 세상이 뛰어다닐듯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이날 승마구락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마운동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기분이 좋다고, 승마운동은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때나 할수 있는 운동인것만큼 승마구락부가 문을 열면 청소년들과 마니아들이 마을것처럼 단련할수 있을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김 준 혁

이날 승마구락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마운동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기분이 좋다고, 승마운동은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때나 할수 있는 운동인것만큼 승마구락부가 문을 열면 청소년들과 마니아들이 마을것처럼 단련할수 있을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이날 승마구락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마운동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기분이 좋다고, 승마운동은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때나 할수 있는 운동인것만큼 승마구락부가 문을 열면 청소년들과 마니아들이 마을것처럼 단련할수 있을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이날 승마구락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마운동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기분이 좋다고, 승마운동은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때나 할수 있는 운동인것만큼 승마구락부가 문을 열면 청소년들과 마니아들이 마을것처럼 단련할수 있을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김 준 혁

이날 승마구락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마운동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기분이 좋다고, 승마운동은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때나 할수 있는 운동인것만큼 승마구락부가 문을 열면 청소년들과 마니아들이 마을것처럼 단련할수 있을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우리의 투쟁을 백전백승으로 고무추동한다

주제 103(2014)년!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광넘긴
행로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게
될 내 조국의 새해이다.

우리의 새해는 신년사를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들으며, 천만전사들의 위훈을
조국청사에 값높이 빛내주시고 온 나
라 가정들까지 따뜻한 축복의 인사
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빛
같은 영상을 우리로써 천만군민이
격경에 눈시를 적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
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
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
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추전잡과 잇닿아
있는 승리의 전진입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
진군을 다그치므로써 혁명과 건설
에서 일대 변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승리자의 진군, 영웅적진군!
얼마나 가슴설레이게 하는 전투적
인 소신인가.

한해는 1월부터 시작된다.

1월, 이달에는 누구나 한해의 계획
을 세우며 밝아온 새해 기쁨과 행복
속에 이머지기를 바라다지 않는다.
하지만 넓고 넓은 이 세상에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앞날에 대한 크나큰
희망과 포부를 안고 새해의 진군길에
오른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
인가.

해돋는 아침같이 활기에 넘치고
설레는 바다와 같이 풍만한 우리
의 희망과 포부는 과연 어디에 뿌리
를 두고있는 것인가.

《신년사를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뵈오니 힘이 납니다.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위하시는
우리 원수님만 계시면 이 세상에 두
려운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는 우
리들입니다.》

이것은 저 멀리 눈덮인 세로동관
건설전투장에서 울려오는 군인건설
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신심에 넘친
목소리이다.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역대
의 제부보다 귀중한것은 앞날에 대
한 확신이며 운명에 대한 믿음이다.
력사의 모든 기적과 변혁은 언제나
자기의 앞날을 굳게 믿는 신념의
강자들이 이룩한것이다.
우리는 승리를 굳게 믿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
리 앞날 밝다!

새해의 진군길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이 신념
이 뜨겁게 고동된다.

이 믿음으로 하여 새해의 진군길
을 다그치는 우리의 발걸음은 그리
도 거창하고 신심에 넘쳐있고 달
려갈 한해의 날과 달들을 그려보는
우리의 눈빛은 그처럼 밝고 희망에
넘치는 것이다.

진군의 기상 넘치는 이 땅의 1월
은 풀없이 밝고 창창할 내 조국의 새
해를 환희롭게 그려준다.

걸어온 길 뒤돌아보고 또다시
걸어갈 앞길을 신심드높이 내다보는
우리의 귀견에 뜨겁게 울려오는

정론 승리를 향하여 진군 또 진군

음성이 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진군의 발
구름소리가 높이 울리는 력사의 분수
령에서 우리 원수님 천만군민의 앞길
에 힘차게 울려오신 진격의 포성.
새해신년사는 최후의 승리를 향해
가는 그 진격의 대오에 더욱 힘있게
울려오신 애국의 호소이다.
이 땅의 모든 초소와 일터마다에
불어치는 기적과 비약의 불바람은
위대한 선군정장의 호소따라 최후승
리의 언덕으로 더 빨리 오르려는 천
만군민의 역세인 심장의 박동이다.
우리는 지난해에 참으로 많은 일
을 해놓았다.

10년을 1년으로 비약하고 남들
같은 몇년을 두고도 이룰수 없는 방
대한 일감들을 단 몇달사이에 해
제하며 참으로 질풍같이 달려왔다.
하지만만 여기서 멈출수 없는 우리
의 발걸음이다.
승리를 향하여 진군 또 진군!
바로 여기에 참다운 조국의 변혁
이 있고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민족
의 패일이 있기때문이다.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

정보의 갱신속도가 분이 아니라 초
반 열화같은 사랑으로 심장을 뚫고
우머 력사의 모진 고난과 시련을 산
산이 불사르는 진짜애국자들만이 단
행할수 있는 장거인이다.
자기 조국이 걸어온 진보와 변혁의
력사를 생각할 때 땅속에 가득찬 금
은보화를 생각하는 민족도 있을수 있
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긍지
높이 들어켜보는 민족도 있을 것이다.
승리를 향하여 진군 또 진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모든
진보와 변혁의 력사에는 바로 이 백
절불굴의 공격정신이 피폭기일이 뻗
어있다.

형들은 유전되지만 민족의 기질과
전통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
김일성민족의 자랑스러운 기질인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은 위대한 혁명
의 기수를 진두에 높이 모신 군대와
인민만이 창조할수 있는 긍지높은
력사이고 전통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높이
모신 조선혁명의 또 한분의 위대한
기수이시다.

그이를 모시어 이 땅은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으로 새차게 뚫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약동하는 젊음
으로 비약하는 기적의 세월로 세계
의 각광을 받고있다.
최근 안 한 나라의 흥분보다도
물은 침없이 이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모드를 전하면서
김정일국방위령장의 야전필자의
사색동음이 다시 울리고있다 평
하였다.

우리 조국은 또다시 혁명의 붉은
기를 진두에 펼칠 때 최후승리의
진군길을 다그치고있다.
이것을 굳게 믿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키고 미래를 앞당기는 불명이같은
부름을 우리는 정녕 잊을수 없다.

위대한 투쟁을 위하여
우리는 정녕 잊을수 없다.

위대한 기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눈부신 기상이다.
그이를 높이 모시어 조국강산은
희망과 신심에 넘치고 그이를 따라
나아가는 진군대오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기다리고있다.
...

그 이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던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충정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조국강산에 높이 울리는 이 노래
는 천만군민이 심장을 터쳐 부르는
신념의 노래, 맹세의 노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굳은 확
신, 그이의 구상과 뜻을 꽃피우는 길
에 민족의 참다운 변혁이 있고 조국
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철석의 신
념으로 우리의 가슴은 벅쳐오른다.
하나를 설계하여도 세계적인것을!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우고 인민
의 리상과 념원을 최상의 높이에서
드 크고 원대하다.

하루빨리, 한사바머 사랑하는 조국
과 인민을 사회주의강성국가승리의
언덕으로 이끌어세우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애국의 열정과 포부는 이
땅에 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건설의
최정성기기를 펼치였다.
몹의 신비경, 황홀경을 펼친 문수
물놀이장의 물미끄럼대결에 서니
뜻 있는 사연이 가슴을 친다.
폭풍도 우뢰도 사나운 격랑도

인민들이 꿈에서조차 그려보지
못하였던 세계적인 물놀이장을 일떠
세워주시고도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그리도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
완공을 앞둔 물놀이장을 또다시 찾
으시어 인민들이 리용할 물놀이시설
을 동행한 일꾼들이 먼저 리용하게
해보시고 오래동안 그 모습을 주의
깊게 바라보신 그이이시였다.

동심에 잠겼듯 일꾼들은 물보라를
뿜기며 물미끄럼대우를 따라 촛살같
이 미끄러져내리는데 이 일을 어이하
라 사정없이 튀어올라 그이의 웃자락
을 적시고 또 적시는 물보라, 물보라...
《화려한 것은 원수님의 웃자락
을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원수님처럼 정진으로
인민을 위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바
라고 또 바라시는 그런분이 어디 있
겠습니까.》

그날의 광경을 전하는 문수물놀
이장 일꾼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다.
그런 이야기 천이천, 만이천가.
이 땅우에 인민의 모든 꿈 이루어
지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 우리 원수님 버치시는
로고는 얼마이고 잠 못 드시고 지새
우시는 밤들은 과연 얼마이랴.
불보다 뜨거운 애국의 열정을
안으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평생이 갖든 이 땅을 만방에 빛내
이시려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의 진군길은 절세의 애국자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사랑하는 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만방에 빛
내이기 위한 력사의 길, 승리의 총
물놀이장의 물미끄럼대결에 서니
뜻 있는 사연이 가슴을 친다.
폭풍도 우뢰도 사나운 격랑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자 없다는 천리마
선주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조국연
영의 새 력사를 창조한 전세대처럼,
어버이장군님 따라 신념의 길, 애국
의 길을 끝함없이 걸어온 승리자들
처럼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한 오늘의 총진군길에 품과
마음을 다 바쳐 싸울 철석의 맹세가
1월의 조국강산에 가득 차립니다.
천만이 선주자가 되자.

이것이 오늘의 총진군대오에 울리
는 시대의 엄숙한 부름이다.
말과 열정을 바치지 않고 앉아서
좋은 날을 보겠다는 사람, 침체와 답
보로 전진하는 대오의 앞길에 걸림
이 되는 사람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이 시대에 살 권리가 없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
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
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위대한 선군정장이 높이 드신 투쟁
과 전진의 기상은 천민의 가슴을 뚫
게 하고 투쟁열, 혁명열을 백배해준다.
무엇을 아끼고, 그 무엇을 서슴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
약의 불바람을.
그것은 바로 조국변혁의 위대한
기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기상과 열정에 삶과 투쟁의 보폭을
맞춘 천만군민의 정진력의 일파 폭
발이다.

강성국가건설의 력사적인 중임이
어느 한두사람의 어깨우에 따로 지
워져있을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시듯처럼 비약의 불바람은 모
든 전선에서 새차게 일어나야 한다.
승리자의 총진군은 모든 전선에서의
기적과 비약으로써만 담보할수 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
문

문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나가며 선행부문, 기초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새차게 일으
켜야 한다.
누구나 혁신자가 되어야 하고 어느
일터, 어느 초소에서나 전례없는 목표
를 내걸고 전진 또 전진하여야 한다.
어제까지 걸었다면 오늘부터는 달
려야 하고 오늘까지 구부로 달려왔다
면 배일부터는 승보로 내달려야 한다.
기적과 비약으로 수놓아진 지난
한해의 경험은 우리가 얼마든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기운차게 날아오
를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으며 최
후승리의 시간표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것을 굳게 확증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더 순결해지고 더욱 굳건해진 우리
혁명대오의 기상과 위력은 하늘에
닿았다.
못해낼 일이 무엇이든 이루지 못
할 기적이 어디에 있랴.

조국변혁의 위대한 기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웅위
하고 그이의 뜻과 구상을 가장 완벽
하게 실천하는 대오의 기수가 되고
전진가 되자.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보폭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첫걸음을 귀
중히 오늘을 하후하루를 기적과 위
훈으로 빛내일 때, 우리의 모든 초소
와 일터들이 목표를 높이 세우고 전
진 또 전진하는 애국자집단이 되고
혁신자집단이 될 때 사랑하는 어머
니 우리 조국은 온 세상이 부러워 바
라보는 주제의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나아가는 속처우를 것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자랑스
러운 후손들이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진군 또 진군하자!
심장을 바치자 이 조선 위해!
방 성 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고 새해의 진군길에 신심드높이 펼쳐나섰다.
-세로동관건설전투장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결의모임 진행, 평양 출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최고은은정속
수도에서 뜻깊은 날을 보낸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3일 평양을 출발
하였다.
그들은 출발에 앞서 인민
무력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 일 성 대 원 수 님 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애
꽃다발을 진중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앞에
서 그들은 결의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대해경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우리의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경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한성토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
을 안고 평양을 떠나는 자기도모
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힘차
여다고 말했다.
그들은 한몸이 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들이 되어 만선의 배고동
소리를 더 힘차게 울림으로써 초
소의 병사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보내줄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송고한 뜻을 실현하는 길에 모
든것을 바쳐갈 혁명열의에 넘
친 회의참가자들을 태운 배스투
이 혁신기지로 향하였다.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군인가
족들이 선조전진의 변혁기가 펼
쳐지게 될 평양한 투쟁의 열, 위
대한 변혁의 해인 뜻깊은 올하
에 군인생활상과 전투력강화

에 이바지할 결의안고 떠나는
회의참가자들에게 열렬한 박수
갈채를 보내였다.
배스행렬이 영웅거리에 들어
서자 조선인민군 군악대의 환영
곡이 힘차게 울려졌다.
장정남동지와 인민무력부 일
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회
의참가자들을 맞이하였다.
인민군인들과 혁명학원 학
생들이 모두에게 꽃목걸이를 걸
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이제 강들을 굽지 못하며 인민
군대의 수산부문 일꾼들, 선장,
어로공들은 인민군대의 후방사
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으며
포구마다에서 만신기 높이 울릴
것을 굳게 약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더 높
은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그들의 맹세가 빛나게 실현되리
라는 기대를 표시하며 인민무
력부 일꾼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과 군인가족들이 회의참가자들
을 뜨겁게 환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었다.
《선행부문, 기초공
업부문을 비롯한 인
민경제 모든 부문에
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합
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신년사를 무한한
감격과 흥분속에 받아
안은 성진제강련합기
업소 일꾼들과 로동계
급의 기세는 하늘에 닿
았다.
높은 강철중산성으로
약동하는 조국의 승결
에 활력을 더해주시는
이들의 불같은 열의가
그대로 쇠물빛노을이
되어 철의 기치를 붉게
물들이고있다.

공들의 심장을 더욱 폭격 해주
었다.
성강의 용해장으로 달려가는 마
음은 이틀뿐이 아니였다.
인민군인들도 파철을 여
가지 운수기계에 달아내고 성
강의 용해장으로 들어섰고 인
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보낸 부
원료들도 련속 들어닥쳤다.
그야말로 지원외의 일제사격
이였다.
성강의 로동계급도 손수페
다 파철을 가득 담아내고 새
해의 첫 출강기에 올랐다. 그들
속에는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
꾼들의 안해들도 있었다.
성강땅에 펼쳐진 이 풍경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조
국변혁의 길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선 우리 인민의 애국의 열정
을 보여주는 한 화폭이었고 밝
아오는 내 조국의 미래를 확신
하는 승진모성이였다.

들의 바늘을 긴장하게 살피면
서 전구조작을 책임적으로 해
나갔다. 그리하여 이북 전기로
들에서는 새해 첫날부터 용해
시간을 많이 단축하여 한 교대
가 두차지점의 쇠물을 뽑아내
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들의 뒤를 따라 맡겨진 계
획을 1.2배로 넘쳐 수행하는
전기로들의 수가 늘어났다.
새해 첫 출강의 기쁨은 5월
17일공방에서도 넘쳐났다.
3호, 2호회전로의 용해공들
이 본때를 보이고있다.
3호회전로의 용해공들은 로
운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원료보다 련속 들어닥쳤다.
전기로들의 수가 늘어났다.
새해 첫 출강의 기쁨은 5월
17일공방에서도 넘쳐났다.
3호, 2호회전로의 용해공들
이 본때를 보이고있다.
3호회전로의 용해공들은 로
운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원료보다 련속 들어닥쳤다.
전기로들의 수가 늘어났다.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결의모임을 하고 평양을 출발하였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 열정 드높다

과학기술용마의 날개를 펼치고 앞으로 내달린다

은정과학자들에 대해 총선군의 이침이 밝아왔다.

과학기술용마를 타고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의 진군길에 오르는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성 드높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결사판철하여 과학기술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과학기술발전으로 인민의 천만가지 행복과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불길갈 세계를 일으켜갈 불같은 혁명적열정과 창조적기상으로 드넓은 과학자기가 불도가나마 당 높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시 마르틴루터 과학기술용마의 날개를 활짝 펼쳐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용마를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나라의 과학기술력량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당과 조국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며 그와 더불어 이룩과

국가과학원에서는 모든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연구사업을 하든 이러한 숭고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올레의 총선군을 다그치도록 하는데 주되는 모를 박고있다.

이러한 국가과학원적인 조직정시사업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즉시 원장,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비롯한 국가과학원의 일군들은 연구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가지고 원수님의 령도업적이 있었어있는 잔디연구부인, 중앙발전연구소와 여러 연구단위들에 내려가 새해전투에 진입한 과학자들과 일군들을 고무해주었다.

지금 국가과학원의 매 부서들과 아래 연구단위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과제를 위하여 전투목표를 구체화하고 정신화하기 위한 작전이 분과 초를 다투며 긴장하게 벌어지고있다. 전투의 승리는 작전도우에서 먼저 마련되기에본다. 현재 국가과학원적으로 지식경제건설의 지평선을 열어놓는데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

과들을 내놓기 위한 수습건의 대상과제들이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는데 과학기술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여러 연구소와 분원과학자들과 일군들의 투쟁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있다.

여러 단위들에서는 추위전달성비품공을 육성해내고 이미 농업생산실현에서 그 우월성과 경제효과성이 뚜렷이 검증된 티오코비로, 콩뿌리혹균비료의 도입입력을 더 늘이며 논경복합군에 의한 집짐승살포력이생산기술과 식물성농약, 종자처리제, 천연생물활성제 등을 확대도입하여 알곡증가 수확고를 높이고 고고기와 알당성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목표를 내세웠다. 과학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위성정보색에 의한 논벼수확도량계측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전진이 이룩된 전망도 좋다.

여러 연구소들의 협동연구를 잘 짜고들어 비석배기질을 대용할수 있는 원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비롯하여 비석생산을 늘이는 선진기술들을 확대도입하기 위하여 장기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이뿐만 아니라, 철도운수종합관리정보체계의 개발, 생산성이 높은 다시마우

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도 짜고되고있다.

소금물농축용이온교환막의 제조공정을 확립하고 산소열분용용원천체활공정의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며 주체철용광로행정에서 간단한 리용품을 높이고 김책체철원합기공업소의 현대수준을 높이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 초산에틸합성공정에서 내내내 여러가지 목표들이 성과적으로 달성되던 우리 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적지 않게 이바지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화력발전소 보이라에 산소-미분원탄화합기술을 도입하고 중형 및 대형발전소들에서 자동형러자중설비의 도입으로 발전기러자체계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과 함께 청정강제단식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현실에서 검증된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선진기술들을 확대도입하기 위하여 장기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이뿐만 아니라, 철도운수종합관리정보체계의 개발, 생산성이 높은 다시마우

항용용성, 국내산천가제에 의한 기능성3절은실막막제조기술의 확립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가치있는 연구결과를 내놓기 위한 투쟁은 여러 연구소들에서도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수확부문에서 초점되고 있는 나비에-스톡스방정식풀이와 성질 연구, 생물수련기술의 도입, 생체반사-전기중합CT탐사체계확립, 분산형컴퓨터중심제 실용판의 개발도입, 지능형정밀종합측정장치의 개발, 촉광형발광재료의 생산공정확립 등 첨단과학기술발전과 첨단산업창설을 위한 목표로 높이 세웠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상과제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깊이 관심하시는 첨단과학기술개발성과는 성과과학자지식도 안착있게 추진시켜나가고있다.

목표는 방대하고 아직은 첫 걸음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참담히 이바지하려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당의 품속에서 키워온 과학적재능과 창조적열정을 총괄성실한다면 높이 세운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명할수 있는 것이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본사기자 려병희

평양건축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설부문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흥분과 감격속에 받아안은 평양건축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새해의 단상설계방법을 교육사업과 설계실현에 구현하기 위한 목표로 높이 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과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기어이 관철할 일념으로 불타는 대학교육자들의 열의와 기세는 대단하다. 건축실내설계과목을 비롯한 모든 전공과목들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고 전자장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교원들의 가치있는 교육방법론연구를 1건이상 내놓으며 새 교수방법들을 교육실현에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있다. 여러 대상들의 건축형성설계와 경제개발구설계, 우리 식의 녹색건축, 생체건축, 지능건축과 수자도시설을 위한 연구사업, 합리적인 건설공법들과 세계적수준의 읍질모의프로그램 개발, 우리 식의 불장식설계리

평양건축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

대학에서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조지침에 제응하는 건축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연구사업목표들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사업목표들을 비롯하여 세우려고있다. 교육사업의 정보화, 현대화, 첨단화를 실현하며 실험실습실들을 많이 내오고 모의실험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전망계획도 대단한 것이지만 다차원설계연구력량을 전담성있게 꾸려 우리 식의 첨단설계방법을 교육사업과 설계실현에 구현하기 위한 목표로 높이 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과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기어이 관철할 일념으로 불타는 대학교육자들의 열의와 기세는 대단하다. 건축실내설계과목을 비롯한 모든 전공과목들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고 전자장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교원들의 가치있는 교육방법론연구를 1건이상 내놓으며 새 교수방법들을 교육실현에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있다.

여러 대상들의 건축형성설계와 경제개발구설계, 우리 식의 녹색건축, 생체건축, 지능건축과 수자도시설을 위한 연구사업, 합리적인 건설공법들과 세계적수준의 읍질모의프로그램 개발, 우리 식의 불장식설계리

평양건축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

대학에서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조지침에 제응하는 건축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연구사업목표들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사업목표들을 비롯하여 세우려고있다. 교육사업의 정보화, 현대화, 첨단화를 실현하며 실험실습실들을 많이 내오고 모의실험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전망계획도 대단한 것이지만 다차원설계연구력량을 전담성있게 꾸려 우리 식의 첨단설계방법을 교육사업과 설계실현에 구현하기 위한 목표로 높이 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과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기어이 관철할 일념으로 불타는 대학교육자들의 열의와 기세는 대단하다. 건축실내설계과목을 비롯한 모든 전공과목들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고 전자장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교원들의 가치있는 교육방법론연구를 1건이상 내놓으며 새 교수방법들을 교육실현에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있다.

여러 대상들의 건축형성설계와 경제개발구설계, 우리 식의 녹색건축, 생체건축, 지능건축과 수자도시설을 위한 연구사업, 합리적인 건설공법들과 세계적수준의 읍질모의프로그램 개발, 우리 식의 불장식설계리

전투장들에 내려치는 화선군의의 정신

각지의 료일군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뎠는 가슴마다에 찬찬 각지로 료일군들이 화선군의의 정신으로 대고전투장들에 달려나가 현장의 료봉사활동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 자애로운 화선군정상을 비롯한 전진의 치료예방기관에서 유능한 료일군들을 망라하고 현대적인 기능전달시설을 갖춘 현장치료대를 편제하여 새해전군길에 펼쳐나선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의료봉사사업을 잘하여야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킬수 있으며 전반적부강사회주의 우월성을 생활력이 높고 발양시킬수 있습니다.>

인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지난해말부터 보건의해당 부문 일군들과 각지의 료일군들은 인민에게 중요단위들에 대한 현장의 료봉사사업을 힘있게 전개할 열의의 가슴 불태웠다.

평양시안의 치료예방기관 료일군들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치료예방사업을 전개할 일념에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고있다. 대고전투장들에 대한 현장의 료봉사자를 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렸던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김만유병원의 료일군들

이 열정에 있다. 지난해 12월말 평양화력발전 전련합기업소에 달려간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료일군들은 치료초소들을 전투적으로 전개하고 다음날 새벽 첫 전투에 펼쳐나선 료동계과 승진을 같이하였다.

해마다 이곳 료동계과 승진을 같이하였다. 해마다 이곳 료동계과 승진을 같이하였다. 해마다 이곳 료동계과 승진을 같이하였다. 해마다 이곳 료동계과 승진을 같이하였다.

방문의료일군들이 내놓는 자그마한 성과를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치료예방과 의사 변경조동무를 비롯한 료일군들은 료봉사활동을 전투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김만유병원의 료일군들

대고전투장들에 대한 현장의 료봉사자를 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렸던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김만유병원의 료일군들

이렇게 해설해주면서 그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였다. 혁명적인 도서를 물론 지성어린 보양들과 생활필수품들도 안겨주며 힘과 고무를 주는 일군들의 모습에서 군인의 영예와 군인들의 전열로병, 공로자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가슴 깊이 감지하였 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받들어갈 충정의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

만수대안덕에 높이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3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일행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손님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조선혁명과 세계지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조선중앙통신]

친부모, 친형제가 되어

염주군안의 일군들이 새해를 맞아 군안의 영예군인, 전열로병, 공로자들의 가정을 찾아가 그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금기반 일군들이 친부모, 친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군안의 영예군인들과 전열로병, 공로자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가슴 깊이 감지하였 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받들어갈 충정의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기자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 도착

[평양 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오가미 경이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일행이 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리경성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이 맞이하였다.

명곡을 통한 교양사업 활발

안악군 마령리에서 시대의 명곡 <조국찬가>, <당강이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시하게 될바라기다. 이북 당조직에서는 농장의 문화회관과 농업과학기술식산건설을 비롯한 여러곳에 노래가사들을 게시해놓고 모든 일군들과 농업인원들이 노래의 구절구절을 같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령도의 모든 농업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우리 당에 자신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앞머리나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북돋아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혁명파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고있다.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인원들은 시대의 명곡을 심장으로 부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명도를 팔로써 받들어가기 위한 당면한 중대업무를 편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료동통신원 신 창 현

해 블 체 육 단 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은 해블체육단의 선수, 감독들은 승리의 신성드높이 백문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체육선수들은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치겠다는 포부, 세계패권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훈련을 정열적으로 완강하게 하여야 합니다.>

체육단의 축구선수, 감독들은 지난해에 경애하는 원수님께 두차례의 편지를 삼가 올리고 믿음어린 친필편지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니었다. 체육단에서는 선수, 감독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받치는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왕성한 투지와 열정에 넘쳐 훈련장마당에서 애국충정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뿌려나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시하게 될바라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모든 체육선수들이 체계적인 훈련자가 될 높은 목표를 가지고 훈련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는데 전력 향을 집중하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이 체육단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훈련조건, 생활조건을 잘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에 고무된 체육단에서는 지

해 블 체 육 단 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은 해블체육단의 선수, 감독들은 승리의 신성드높이 백문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체육선수들은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치겠다는 포부, 세계패권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훈련을 정열적으로 완강하게 하여야 합니다.>

체육단의 축구선수, 감독들은 지난해에 경애하는 원수님께 두차례의 편지를 삼가 올리고 믿음어린 친필편지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니었다. 체육단에서는 선수, 감독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받치는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왕성한 투지와 열정에 넘쳐 훈련장마당에서 애국충정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뿌려나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시하게 될바라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모든 체육선수들이 체계적인 훈련자가 될 높은 목표를 가지고 훈련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는데 전력 향을 집중하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이 체육단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훈련조건, 생활조건을 잘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에 고무된 체육단에서는 지

해 블 체 육 단 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은 해블체육단의 선수, 감독들은 승리의 신성드높이 백문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체육선수들은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치겠다는 포부, 세계패권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훈련을 정열적으로 완강하게 하여야 합니다.>

체육단의 축구선수, 감독들은 지난해에 경애하는 원수님께 두차례의 편지를 삼가 올리고 믿음어린 친필편지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니었다. 체육단에서는 선수, 감독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받치는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왕성한 투지와 열정에 넘쳐 훈련장마당에서 애국충정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뿌려나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시하게 될바라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모든 체육선수들이 체계적인 훈련자가 될 높은 목표를 가지고 훈련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는데 전력 향을 집중하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이 체육단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훈련조건, 생활조건을 잘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에 고무된 체육단에서는 지

전력생산자들을 힘있게 고무

미철부자의 창작가, 교원, 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직관선동은 직관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힘있는 선동형식의 하나입니다.>

미철부자의 창작가, 교원,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 첫날부터 전력증산의 동물을 세차게 울리고있는 평양화학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자들을 찾아와 힘있는 직관선동활동을 진행하고있다.

만수대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 평양시미술창작사, 평양철도극단창작사 등 여러 미술창작기관의 창작가와 평양미술대학의 교원들은 타린직장 미술생산1, 2직장의 현장에서 전투속도들도 쓰고 로력혁신자 초상소묘들도 수많은 창작하였다.

그리고 창작 완성한 직관물들을 연합기업소의 여러 가지 판들과 전투속보판들에 게시함으로써 전력생산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그리고 창작 완성한 직관물들을 연합기업소의 여러 가지 판들과 전투속보판들에 게시함으로써 전력생산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더 굳건히 세워준 마음의 대들보

(누구일가?)

아침에 대문밖에서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인적이 날 북북청군과수장정영위원회와 과학수능장 근로자 조영호동무와 가족들은 이 생각을 더듬었다.

이윽고 너무나 멀고 환한 웃음을 머무고 씩씩한 기쁨을 비롯한 갖가지 식료품까지 손에 한가득 들고서서 사람은 뜻밖에도 초급당비서 김석수였다.

그날 초급당위원회의 치밀한 분공조치사업에 따라 지배인분공순동무를 비롯한 다른 일군들도 근로자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싸울 고귀한 뜻을 다짐하였다. 이윽고 이 수많은 일군들만 이라.

전국의 수많은 단위 당일군들이 명절날에 자기 단위 농업인들의 가정들을 순회하는 뜻으로 찾아오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나서 그 집에 소중히 보관되어있는 반일애국력사증서로 화제를 이어갔다. 초급당비서는 혁명의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청춘도 생애도 아낌없이 바쳐싸울 고귀한 삶의 체현자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파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투철한 수평적용위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을 특색있게 진행하고있다. 희망찬 새해 명절날에 새겨진 당일군들의 발자국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어머니당의 사랑의 손길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게 하고 올해전투에서 반드시 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쳐갈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게 하였다. 본사기자

전력생산자들을 힘있게 고무

미철부자의 창작가, 교원, 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직관선동은 직관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힘있는 선동형식의 하나입니다.>

미철부자의 창작가, 교원,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 첫날부터 전력증산의 동물을 세차게 울리고있는 평양화학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자들을 찾아와 힘있는 직관선동활동을 진행하고있다.

만수대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 평양시미술창작사, 평양철도극단창작사 등 여러 미술창작기관의 창작가와 평양미술대학의 교원들은 타린직장 미술생산1, 2직장의 현장에서 전투속도들도 쓰고 로력혁신자 초상소묘들도 수많은 창작하였다.

그리고 창작 완성한 직관물들을 연합기업소의 여러 가지 판들과 전투속보판들에 게시함으로써 전력생산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그리고 창작 완성한 직관물들을 연합기업소의 여러 가지 판들과 전투속보판들에 게시함으로써 전력생산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더 굳건히 세워준 마음의 대들보

(누구일가?)

아침에 대문밖에서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인적이 날 북북청군과수장정영위원회와 과학수능장 근로자 조영호동무와 가족들은 이 생각을 더듬었다.

이윽고 너무나 멀고 환한 웃음을 머무고 씩씩한 기쁨을 비롯한 갖가지 식료품까지 손에 한가득 들고서서 사람은 뜻밖에도 초급당비서 김석수였다.

그날 초급당위원회의 치밀한 분공조치사업에 따라 지배인분공순동무를 비롯한 다른 일군들도 근로자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싸울 고귀한 뜻을 다짐하였다. 이윽고 이 수많은 일군들만 이라.

전국의 수많은 단위 당일군들이 명절날에 자기 단위 농업인들의 가정들을 순회하는 뜻으로 찾아오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나서 그 집에 소중히 보관되어있는 반일애국력사증서로 화제를 이어갔다. 초급당비서는 혁명의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청춘도 생애도 아낌없이 바쳐싸울 고귀한 삶의 체현자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파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투철한 수평적용위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을 특색있게 진행하고있다. 희망찬 새해 명절날에 새겨진 당일군들의 발자국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어머니당의 사랑의 손길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게 하고 올해전투에서 반드시 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쳐갈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게 하였다. 본사기자



대중의 마음속으로, 들끓는 전투장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선원, 인민의 총부로서는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희망찬 새해 주제 103(2014)년을 각지의 당일군들은 드넓은 책임감과 불같은 헌신으로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으로 심장을

뛰어주며, 자기 단위 농업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관심하며 새해 명절날에 헌신의 발자국을 새겨간 당일군들의 모습은 참으로 미덥다. 새해 명절날에 이 땅의 일터와 마을들에 새겨진 당일군들의 발자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일군들이 년초부터 열마디 분발하여나섰는가를 열, 백마디의 말보다 더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도 하면서 새해에도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나고 하는 초급당비서의 말은 너인

사나이들의 약속의 위대성 선전을 격성없이 진행하고나서 힘차게 호소하였다. <지난해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들고 소대가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실현케 수행한 기세로 올해에 더 높이 날자!>

그해 겨울의 한바탕의 폭설이 내리자마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소대가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실현케 수행한 기세로 올해에 더 높이 날자!>

그해 겨울의 한바탕의 폭설이 내리자마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소대가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실현케 수행한 기세로 올해에 더 높이 날자!>

대중의 마음속으로, 들끓는 전투장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선원, 인민의 총부로서는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희망찬 새해 주제 103(2014)년을 각지의 당일군들은 드넓은 책임감과 불같은 헌신으로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으로 심장을

뛰어주며, 자기 단위 농업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관심하며 새해 명절날에 헌신의 발자국을 새겨간 당일군들의 모습은 참으로 미덥다. 새해 명절날에 이 땅의 일터와 마을들에 새겨진 당일군들의 발자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일군들이 년초부터 열마디 분발하여나섰는가를 열, 백마디의 말보다 더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도 하면서 새해에도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나고 하는 초급당비서의 말은 너인

사나이들의 약속의 위대성 선전을 격성없이 진행하고나서 힘차게 호소하였다. <지난해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들고 소대가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실현케 수행한 기세로 올해에 더 높이 날자!>

그해 겨울의 한바탕의 폭설이 내리자마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소대가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실현케 수행한 기세로 올해에 더 높이 날자!>

그해 겨울의 한바탕의 폭설이 내리자마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소대가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실현케 수행한 기세로 올해에 더 높이 날자!>

그해 겨울의 한바탕의 폭설이 내리자마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소대가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실현케 수행한 기세로 올해에 더 높이 날자!>

그해 겨울의 한바탕의 폭설이 내리자마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소대가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실현케 수행한 기세로 올해에 더 높이 날자!>

그해 겨울의 한바탕의 폭설이 내리자마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소대가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실현케 수행한 기세로 올해에 더 높이 날자!>

